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69-75,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069

평생교육에 대한 중년과 노년 영어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 연구

최경미
안동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강사

A Study on th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Middle-aged and Elderly English Learners in Lifelong Education

Kyung-Mi Choi
Instructor,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년과 노년으로 구분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연령 집단별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경북지역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연구 참가자 8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필요성, 열정, 이점, 저해요인, 학습동기, 선호하는 과목과 학습방법을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년 학습자들이 중년 학습자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영어 학습 태도를 보였고, 학습동기와 선호하는 과목에서는 두 그룹 모두 의사소통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에 대한 저해요인으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함께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어려움이 조사되었고 선호하는 학습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노년 학습자의 긍정적인 학습 태도에 따른 학습 성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영어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노년 학습자, 언어 습득, 외국어 학습, 초고령 사회, 학습 태도, 복합적 응답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nglish learners who are over 40 on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 for lifelong education by dividing them into age groups of middle aged and elderly learners. To this end, from May 20, 2020 to June 30, 2021, 80 participants attending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were survey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erest, necessity, passion, advantage, hindrance, learning motivation, preferred subjects, and learning method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lderly learners showed a more positive English learning attitude than middle-aged learners, and both groups considered the communication area important in their learning motivation and preferred subjects. In regard to hindrance toward English learning, different factors were shown according to the age groups along with lack of confidence in English. Differences were also shown in preferred learning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learning outcomes according to the positive learning attitude of elderly learners along with the need for detailed English program design according to learners' age.

Key Words : Elderly learners, Language acquisition, Foreign language learning, Super-aged society, Learning attitudes, Multiple response

*Corresponding Author : Kyung-Mi Choi(freeonion@naver.com)
Received April 13, 2022
Revised April 27,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고 총인구에서 중위 연령은 43세라고 발표하였다[1].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40대 이상의 성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관련 조사 및 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 의하면 외국어 프로그램은 주요 프로그램에 선정될 정도로 선호도를 나타냈고[2],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평생교육원에서도 영어 프로그램은 상위 인기 강좌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영어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초, 중, 고, 대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의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년 학습자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한국은 2015년 40대 이상의 인구수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3] 중년과 노년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낸 노인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점검하고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 중인 중년과 노년 영어 학습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속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장년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편견

성인들은 누적된 학습 자원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4] 내재된 학습능력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족과 사회적 책임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제나 숙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들은 삶에 의미가 있는 목표에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상적인 개념과 규칙을 잘 이해할 수 있다[5].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언어습득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고,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 학습에서 유리하고 나이가 듦에 따라 그러한 능력은 쇠퇴한다는 연구[6]로 인해 중장년 학습자들의 외국어 학습에는 편견이 있다. 한편, 성인 학습자들의 부정적인 과거 학습 경험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될 수 있고[7] 이러한 상황은 중장년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을 하는데 열등의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8].

2.2 외국어 학습에 있어 학습 태도의 중요성

외국어 학습의 성과에는 학습자의 태도, 동기,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9]. 따라서 학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목표어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강한 학습 의지로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도출한다[10]. 또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주변인들의 격려, 영어 학습의 필요성과 이점, 타문화권 화자에 대한 인식과 같은 정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11]. 이렇게 학습자의 태도는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신념, 감정,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 즉, EFL 학습자가 목표어 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면 인지적으로 유의미한 성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태도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12]. 그러므로 언어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어 보다 많은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게 한다. 반면에,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를 꺼리게 하고 집중도를 감소시킨다[13]. 이렇게 외국어에서 학습자의 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한국인의 은퇴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14] 40-50대 중년 그룹과 60세 이상의 노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는 연령과 직업, 학력 등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수와 비율을 보여준다. 중년 그룹은 45명, 노년 그룹은 35명이 참여하여 전체 연구대상자들은 80명이었다. 특히, 중년 그룹에서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남성에 비해 6배 이상 많았

고 노년 그룹에서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Table 1. Participants

Age	Sex		Rate
	Male	Female	N(%)
Middle-aged group	6	39	45(56.3)
Elderly group	14	21	35(43.7)
Total	20	60	80(100)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학력, 영어 사용국에서 거주기간, 정규교육을 제외한 영어 학습기간,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참가자의 학력은 Table 2와 같이 중년 그룹은 전문대학교 졸업자가 40%,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1.1%였다. 한편 노인 그룹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1.4%로 가장 많았다. 영어 사용국에서 거주 기간은 중년 그룹은 64.5%, 노년 그룹은 88.6%가 1주일 이내의 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정규교육을 제외한 영어 학습 경험에서는 중년과 노년 그룹 모두 2년 이내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중년 그룹의 직업은 주부가 46.7%, 공무원이 31.2%로 나타났고, 노년 그룹은 주부 54.3%, 농업 종사자 34.2%로 조사되었다.

3.2 연구 설계 및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2020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경북지역에 위치한 3개 평생교육기관의 중년과 노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영어 학습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고자 기존 연구방법을 참고하였다[15-17]. 영어 학습 태도에 나타내는 4개의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영어 학습에 있어 저해요인, 학습 동기, 선호하는 과목과 학습방법은 응답자들의 복합적인 의견을 수집하고자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articipation

Category	Sort	Middle-aged group(%)	Elderly group(%)	N(%)
Educational background	Graduated middle school	1(2.2)	5(14.3)	6(7.5)
	Graduated high school	10(22.2)	18(51.4)	28(35)
	Graduated college	18(40)	5(14.3)	23(28.8)
	Graduated university	14(31.1)	4(11.4)	18(22.5)
	Master's degree	2(4.5)	2(5.8)	4(5)
	Doctor's degree	0(0.0)	1(2.8)	1(1.2)
Duration of sta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Within 1 week	29(64.5)	31(88.6)	60(75.0)
	1 week-1 month	8(17.8)	2(5.8)	10(12.5)
	1 month-6 months	5(11.1)	1(2.8)	6(7.5)
	6 months-1 year	2(4.4)	0(0.0)	2(2.5)
	1 year-3 months	0(0.0)	0(0.0)	0(0.0)
	Over 3 years	1(2.2)	1(2.8)	2(2.5)
Experience in Learning English excluding Public Education	Less than 1 year	21(46.7)	21(60)	42(43.8)
	1-2 years	12(26.7)	5(14.3)	17(35)
	2-3 years	8(17.8)	5(14.3)	13(11.3)
	3-4 years	2(4.4)	2(5.7)	4(5)
	4-5 years	2(4.4)	1(2.8)	3(3.7)
	More than 5 years	0(0.0)	1(2.8)	1(1.2)
Occupation	Health care	6(13.3)	1(2.9)	7(8.7)
	Housewife	21(46.7)	19(54.3)	40(50)
	Manufacturing	0(0.0)	1(2.9)	1(1.3)
	Public services	14(31.2)	2(5.7)	16(20)
	Trading	2(4.4)	0(0.0)	2(2.5)
	Agriculture	2(4.4)	12(34.2)	14(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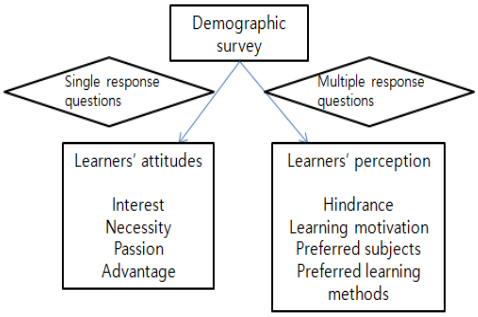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design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G시 평생교육원, G대학 평생교육원, K도서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학습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구하고 온라인 및 서면으로 신청을 받았다.

분석방법은 영어 학습태도를 묻는 단일응답방식의 설문문항은 SPSS 22.0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하였고, 분석 검증에 대한 유의수준은 α=.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영어 학습에 대한 저해요인, 학습동기, 선호하는 과목과 학습법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응답 결과를 파악하고자 다중응답방식의 설문조사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영어 학습에 대한 참가자의 태도를 묻는 4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는 0.704로 나타났고, 각 문항에 대한 분산의 검증 결과는 동질하였다(p>0.05).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필요성, 열정, 이점에 관하여 중년과 노년 그룹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3에서 제시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는 두 집단 모두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노년 집단은 중년 집단 보다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10,12]에 근거하여 기존의 부정적 편견[8]과는 달리 노인 학습자도 외국어 학습에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ANOVA Results of Attitudes about English Learning

Item	Age	N	Mean	Std. Deviation	F	Sig.
Interest (N=80)	Middle-aged Group	45	3.67	.564	4.525	.037*
	Elderly Group	35	3.94	.591		
Necessity (N=80)	Middle-aged Group	45	4.58	.543	4.348	.040*
	Elderly Group	35	4.31	.583		
Passion (N=80)	Middle-aged Group	45	4.20	.726	4.765	.032*
	Elderly Group	35	4.54	.657		
Benefit (N=80)	Middle-aged Group	45	4.27	.618	7.457	.008*
	Elderly Group	35	4.63	.547		

*p<.05, **p<.01, ***p<.001

영어학습의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을 묻기 위해 다중 응답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able 4는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룹 모두 영어에 있어 자신감 부족을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보았고 다음 순서로는 중년 그룹은 시간 부족, 노년 그룹은 노화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장년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4. Hindrance for English Learning

Answer	Middle-aged group	Elderly group
	N(%)	N(%)
Lack of confidence in English	21(26.9)	24(31.6)
Lack of time	18(23.1)	12(15.8)
Absence of appropriate English programs	12(15.4)	7(9.2)
Difficulty in English contents	9(11.5)	9(11.8)
Economic burden	7(9.0)	3(3.9)
Aging	5(6.4)	15(19.8)
Child care and Housekeeping	4(5.1)	0(0.0)
Health problem	2(2.6)	6(7.9)

Table 5는 영어 학습동기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영어 학습에 대한 저해요인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다양한 의견 수집을 위해 다중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후 연령 집단에 따라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년과 노년 그룹 모두 해외여행을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다음 순서로는 중년그룹은 영어가 국제어라서, 노년 그룹은 교양함양을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한다고 답하였다.

Table 5. Motivations for English Learning

Motivation	Middle-aged group	Elderly group
	N(%)	N(%)
To make foreign friends	5(5.2)	2(3.0)
For overseas travel	25(25.7)	18(26.9)
English is a subject	0(0.0)	0(0.0)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that I like	0(0.0)	5(7.5)
To broaden social activ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4.1)	0(0.0)
The acquisition of language knowledge itself means something	5(5.2)	7(10.4)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21(21.6)	14(20.9)
To study abroad or emigrate	0(0.0)	0(0.0)
English is a special language in Korea	0(0.0)	0(0.0)
I have a special talent for English	0(0.0)	0(0.0)
In order to enter higher schools	0(0.0)	0(0.0)
I don't want to be out of competition with others	0(0.0)	0(0.0)
For future dreams	0(0.0)	0(0.0)
Mother wants me to learn English	0(0.0)	0(0.0)
For the cultivation of culture	18(18.5)	15(22.4)
To teach English to children	6(6.2)	6(8.9)
To work at workplace	5(5.2)	0(0.0)
Not to lose the competition	5(5.2)	0(0.0)
For employment and job conversion	3(3.1)	0(0.0)

Table 6은 연구 참가자가 속한 평생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어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학습자의 선호하는 과목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한 후 빈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년과 노년 그룹 모두 영어회화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여행영어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Table 5와 6에서처럼 중장년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인 영어 학습을 선호하고 이러한 특성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한다는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과 일치하였다[5].

Table 6. Preferred English Subjects

Subject	Middle-aged group	Elderly group
	N(%)	N(%)
English conversation	31(51.7)	22(55.0)
Travel English	24(40.0)	15(37.5)
English reading	5(8.3)	3(7.5)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다중응답방식을 설문조사 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년그룹은 Table 7과 같이 그룹 스터디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온라인 영어 과정이었다. 반면에 노년그룹은 한국인 강사의 지도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영어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였다. 특히, 두 그룹 모두 원어민에 의한 수업보다 한국인 강사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장년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서 자신감 부족을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교사와의 수업이 보다 적절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은 노년 그룹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Table 7. Preferred English Learning Methods

Learning method	Middle-aged group	Elderly group
	N(%)	N(%)
Through a group study	19(21.1)	6(12.0)
Online course of English	14(15.5)	8(16.0)
Offline course of English	13(14.4)	12(24.0)
Using English Audio materials	9(10.0)	4(8.0)
Through English tutoring with Korean teachers	7(7.8)	10(20.0)
Self-study	7(7.8)	2(4.0)
Phone English or Screen English	7(7.8)	3(6.0)
Using English textual materials	6(6.7)	0(0.0)
Through English tutoring with native speakers	5(5.6)	5(10.0)
Through language study abroad	3(3.3)	0(0.0)

5.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년과 노년 학습자의 태도와 인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노년 그룹은 중년 그룹에 비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열정, 이점에 대한 항목에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 학습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는 달리 외국어 학습에 유의미한 학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영어 학습의 저해 요인에 대해 두 그룹 모두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중년 그룹의 경우 시간부족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노년 그룹은 신체 기능의 쇠퇴와 같은 노화를 다음 순서로 답하였다. 약 75%가 전문대 졸업자 이상인 중년 그룹은 노년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영어 능력을 보유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므로

그들의 영어 학습에 저해요인으로 지목된 시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학자를 위한 교재개발이나 온라인 콘텐츠의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 반면에 약 66%가 고등학교 졸업자 이하인 노년 그룹은 졸업 후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길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 저하 및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감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교사와의 대면수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연령에 따라 다른 학습법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동기에서도 중년과 노년 그룹 모두 해외여행을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한다고 답하였으므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수업내용과 축적된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중장년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령에 따른 영어 교과목과 학습법 개발이 요구되지만 더욱 심도있는 설문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영어 학습 태도를 나타내는 영어에 대한 흥미, 필요성, 열정, 이점의 설문문항에서는 학습자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자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였지만, 영어 학습에 대한 저해요인, 학습동기, 선호하는 과목과 학습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한 후 빈도분석을 하였으므로 분석 내용이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과 노인 학습자들은 학습동기와 저해요인, 선호하는 과목에 있어서는 유사한 편이었지만, 학습 태도 면에서는 노인 그룹이 더욱 긍정적인 편이었고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법은 상이하였다. 그러므로 중년과 노년 학습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영어 학습자들에게 연령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다면 노년기에도 외국어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21). *Special Estimate of the Future Population: 2020-2070*.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2]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 *Korean Adults Lifelong Learning Survey*. Retrieved from https://kess.kedi.re.kr

[3] K. S. Kim. (2016.09.07). *Korea's mid-age population moves from 30s to 40s*.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9/635746/

[4] F. Donald. (2011). Principles of adult learning: An ESL context. *Journal of Adult Education, 40,* 34-39.

[5] D. Popescu. (2014). Teaching English to adult learners. Annals Constantin Brancusi U. Targu Jiu, Letters & Soc. *Sci. Series,* 120.

[6] T. Scovel. (2000). The younger, the better" myth and bilingual education. *Language ideologies: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official English movement, 1*, 114-136.

[7] J. Hammer. (2000).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Pearson Education.

[8] H. S. Jo. (2003). Adults' Foreign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5(3),* 255-280.

[9] L. Wang & X. Wu. (2020). Influence of Affective Factors on Learning Abilit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vista Argentina de Clínica Psicológica, 29(2),* 1232-1240. DOI : 10.24205/03276716.2020.365

[10] J. Zayed & H. Al-Ghamdi. (2019). The Relationships Among Affective Factors in Learning EFL: A Study of the Saudi Sett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12(9),* 105-121. DOI : 10.5539/elt.v12n9p105

[11] R. Adachi. (2010).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otivation and Attitudes of Young Japanese Foreign Language Learners. *Language Education & Technology, 47,* 205-226. DOI : 10.24539/let.47.0_205

[12] M. J. Z. Abidin, M. Pour-Mohammadi & H. Alzwari. (2012). EFL Students' Attitudes towards Learning English Language: The Case of Liby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sian Social Science, 8(2),* 119-134. DOI : 10.5539/ass.v8n2p119

[13] D. H. Brown.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s.). Pearson Education.

[14] Reliabl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Promotion of Employment for the Elderly.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

[15] V. V. Viet. (2017)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A case Study at Nong Lam University. *VNU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33(4)*, 1-7.
DOI : 10.25073/2588-1159/vnuer.4119

[16] H. R. Lee. (2008). *Analysis of Demand for Lifelong Education in English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South Korea.

[17] Y. W. Kim & J. H. Kim. (2016). An analysis of English needs of Korean adult learners: Focusing on students in K Cyber Univers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28(3)*, 63-90.

최 경 미(Kyung-Mi Choi) [정회원]

· 2022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8년 4월 ~ 2020년 3월 : 김천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 2020년 4월 ~ 2021년 1월 : 유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수
· 2022년 3월 ~ 현재 : 안동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강사
· 관심분야 : 영어교육, 영어습득
· E-Mail : freeonion@naver.com